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 어간다. 세월은 육체의 활기를 빼앗아 가지만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더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 짧은 여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분명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며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초라한 걸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른과 젊은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스승과 제자 간, 직장 상하 간, 그리고 노년과 청년 세대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렇다고 그 탓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주체인 어른과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 우선 오늘의 노년 세대는 옛 선조들과 오늘의 젊은이를 이어주는 교량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지혜를 옛 선조들이 남긴 교훈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들도 많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이와 똑같아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은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아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들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을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법을 배우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 할 겨를조차도 없다. 지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대한민국 노인의 '오늘'은 과연 암울한가. 좀 산다는 나라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다. '까니를 걱정하는 노인'은 바로 우리 이야기다. 어쨌든 불교의 설화 모음에 나타난 노인의 지혜는 끝없이 많다.

이제 멋있는 노년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노인이 사는 지혜를 터득해 보자.

'논어' 자한 편에서 '공자는 4가지가 완전히 없었다(자절사·子絶四)'고 했다.

4가지란 의(意), 필(必), 고

(固), 아(我)다 여기서 '의'는 근거 없는 억측이요, '필'은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자세요, '고'는 융통성 없는 완고함, '아'는 오직 나만 이르는 집착으로 풀이 된다. 이 4가지가 없어야 성인이라 했다.

또 탐무드는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춘다.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나다. 열여덟 살은 말, 다 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탕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청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라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 기려 하지 말고 저 주시구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제 부러라도 과연 나는 불어난 나이만큼 더 현명해졌을까?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문해 봐야 한다.

社說

국·공립 유치원 확대해야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1080개 학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앞으로는 국공립에서도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책임진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국공립 취원을 4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공립 학급을 1000개 넘게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1080개 학급은 단설 321개, 병설 671개, 공영형 88개다. 3월 새학기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부터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 취원이 낮은 지역부터 먼저 만든다. 국공립 원아 2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

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예비비를 먼저 활용한다. 교사는 내년 3월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교원을 산발해 9월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30여개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한다. 완공까지는 2~3년이 걸린다.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확충에도 나선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곳이 문을 열 준비를 마쳤고, 9월에 5곳이 더 생긴다. 사립이지만 지원과 감시를 모두 늘려 공공성을 높인 공영형유치원 제도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를 추가로 모집한다. 우선배려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우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사립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립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率 거느릴
賓 손
歸 돌아갈
王 임금

率賓歸王

▷ 뜻: 거느리고 복종(服從)하여 왕(王)에게 돌아오니 덕(德)을 입어 복종(服從)치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본 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겨울철은 급격한 이상기온으로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지나해 소방청 화재통계 연감에 의하면 겨울철(2017.11월~2018.02월) 화재발생 16,423건 중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관련 화재는 1,300건에 달해 약 8%에 이른다.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은 전기히터·장판,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를 일컫는 것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안전사용에 대한 다음의 수칙들을 꼭 지켜야겠다.

첫째, 전열기 사용 중에 난방주의에 가연성물질(이불, 소파, 커튼 등)이 맞닿아 있으면 화재로 번질 수 있으므로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난방기구 주변에서 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전기난방기(전기난로, 전기장판 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외출할 때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전기난방기(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원을 필히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전열기구는 벽으로부터 약 20cm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 켜 놓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스토브 근처에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전기 장판류는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구부러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어 그 부분에 열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전기 장판류를 접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오래된 전기난방제품은 고장이나 쌓인 먼지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꺼낼 때에는 전선과 플러그를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쌓인 먼지를 잘 닦아주어야 한다.

이처럼 겨울철은 추운 날씨 인해 겨울용품 사용이 빈번한 만큼 화재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편리성으로 인해 취급 부주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예상치 못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선호 / 나주소방서 소방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